雙谿寺 眞鑑禪師大空塔의 推定

鄭 永 鎬

一

雙谿寺는 慶尙南道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에 位置하는 바 이 곳은 智異山의 連峰이 南쪽으로 흘러 내린 一支脈의 南麓이어서 山寺를 「智異山 雙谿寺」라 일컫고 있다(圖 1. 참조).

여기에는 眞鑑禪師大空塔碑(國寶 第47號)를 비롯하여 石造浮屠(寶物 第380號), 大雄殿(寶物 第500號)등의 指定文化財가 保存되어 있고 이 밖에 寺刹의 附屬建物이 많으며 또한 伽藍 주변의 風致가 계절 따라 佳景을 이루어서 同學들의 踏査와 探勝客들의 訪問으로 四節 人跡이 끊일사이 없어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大伽藍이다.

眞鑑禪師大空塔碑는 이곳 雙谿寺에 傳承되어 오는 遺品中에서 가장 오래인 石造物인데 특히 新羅下代의 文豪 孤雲 崔致遠의 四山碑의 하나로 유명하거니와 더우기 이 石碑는 글씨까지 崔孤雲이 쓴 이른바 孤雲이 撰書한 碑石이라는 점에서 金石文으로서는 물론 書誌學에서도 注目하여 오던 歷史的인 遺物이다(圖 2). 이 碑石은 碑名에서도 곧 알 수 있듯이 眞鑑禪師에 관계된 內容을 撰한 碑文일 것인 바 個人的으로는 禪師의 行跡과 學德 등을 적어 놓은 功蹟碑일 것이나 한편 寺刹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禪師를 중심한 여러가지 주변의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이므로 唯一한 事蹟碑라고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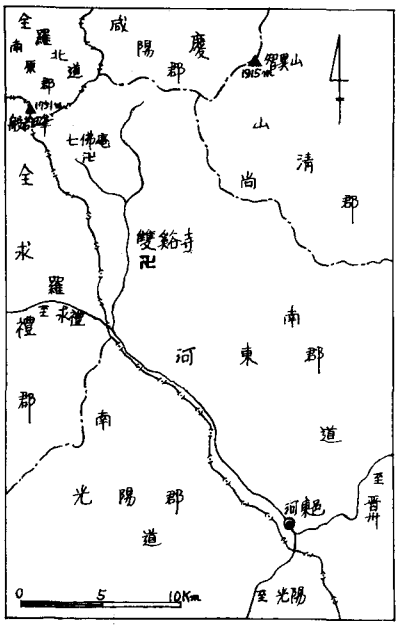

圖 1. 雙谿寺 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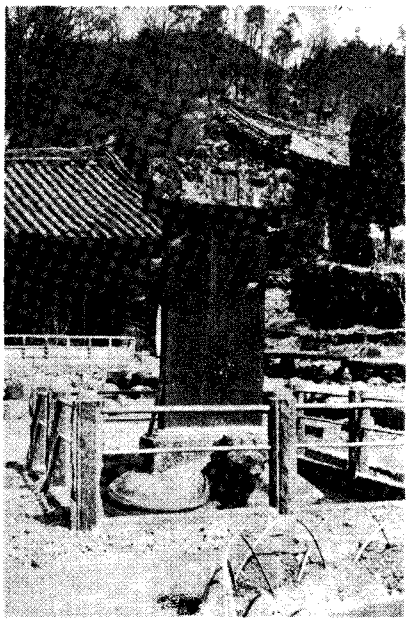

圖 2. 眞鑑禪師大空塔碑

수 있을 것이니 이제 이 碑文에 의하여 禪師와 雙谿寺의 事蹟을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1]

禪師의 諱는 慧昭, 俗姓은 崔氏이며 全州 金馬 사람으로 惠恭王 10年(774→唐代宗 大曆 9年)에 出生하였다. 哀莊王 5年(804→唐德宗 貞元 20年) 31歲 때 唐나라로 건너갔는데 그 때 唐에는 同鄕의 道友 道義가 있었다. 그 후 道義가 먼저 新羅로 돌아오고 禪師는 興德王 5年(830→唐文宗 太和 4年) 57歲에 歸國하였다. 新羅에 돌아온 뒤 처음에는 尙州 露岳長栢寺에 住錫하였었으나 후에 智異山에 이르러 花開谷에 들어가 故三法和尙의 遺基에 堂宇를 세워 여기에 있었는데 그 후 드디어 奇勝의 고장을 찾아 南嶺의 기슭에 禪刹을 創建하고 六祖의 影堂을 세워 처음에는 玉泉寺라 하였으나 후에는 雙谿寺라 改稱하였다[2]는 것이다.

현재의 雙谿寺는 北쪽 智異山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큰 溪流와 東쪽 不日瀑布에서 내려오는 溪流가 合流되는 東쪽 山峰南麓에 位置하고 있는데 이곳이 新羅代에 眞鑑禪師께서 자리잡은 옛터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의 伽藍配置가 2群을 이루어 각기 그 坐向이 다를 뿐인데 이것은 各建物이나 境內의 諸遺物로 보아 先後의 經營을 가릴 수 있다.

즉 兩群의 坐向으로 보면 南向의 1群과 西向한 伽藍이라 하겠는데 南向한 諸建物의 配置는 山중턱으로 올라가면서 層段式으로 築臺를 쌓고 각기 그 위에 建物을 세우되 맨위에 「金堂」이라 하여 「六祖頂相塔」을 奉安하고 그 앞에 高麗代의 石塔이 있으며(圖 3) 그 左右方(東西)에 禪房이 있다. 그리고 한段 낮은 臺地에는 八相殿(捌相殿)과 寂默堂(지금은 燒失됨), 樓閣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寂默堂 建物은 西向한 大雄殿보다는 훨씬 建築年代가 올라가는 建物이었다. 한편 西向한 伽藍에 있어서는 大雄殿을 中央 築臺위에 세우고 그 밑의 左右에는 僧房이 있으며 앞쪽에 樓閣이 있어 朝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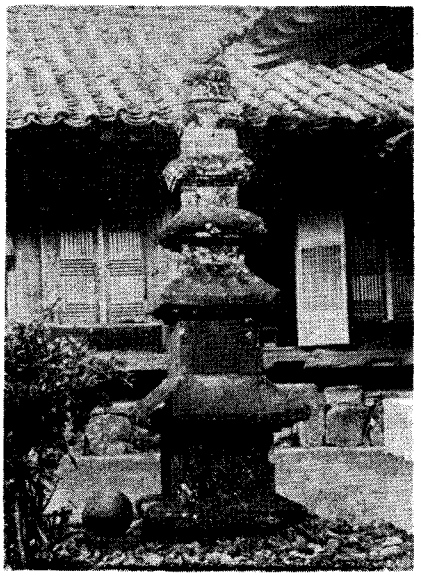

圖 3. 金堂 앞의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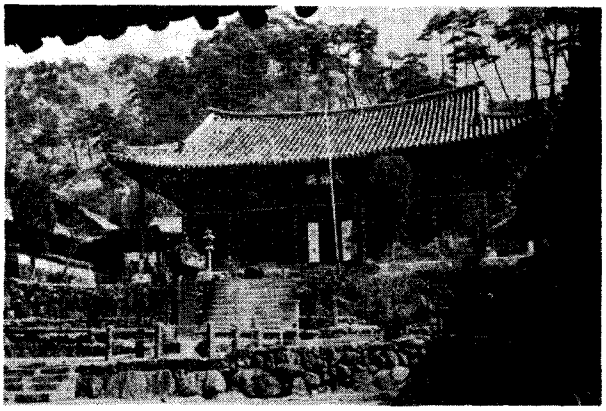

圖 4. 西向한 大雄殿

(1) 碑文은 그 全文이 朝鮮金石總覽(上)에 揭載되어 있다.
(2) 忽滑谷快天著 朝鮮禪敎史 (1930) 및 葛城末治學著 朝鮮金石攷 (1935) 참조.

時代 後期 寺院의 典型的인 格式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配置는 京畿道 華城郡의 龍珠寺나 驪州 神勒寺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西向 配置의 境內에서 注目되는 것은 大雄殿 앞뜰에 세워져 있는 眞鑑禪師碑와 石燈材, 그리고 大雄殿 옆의 岩壁에 彫刻한 磨崖坐像이다.

眞鑑禪師碑는 碑身과 螭首, 碑座龜趺의 龜頭 등 전체가 南向하고 있으므로 大雄殿을 중심한 伽藍 經營과는 전혀 關係가 없는 것으로서 현재가 原位置임이 分明하다(圖 5).

石燈部材는 下臺石과 竿柱, 上臺 등인데 8角 下臺側面石의 眼象과 上·下臺의 仰·伏蓮으로 보아 新羅時代 所作이며 이것은 原位置에서 옮겨져 있는 것이다. (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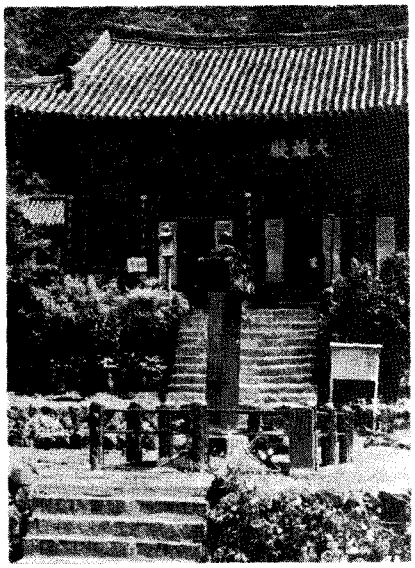

圖 5. 大雄殿前庭의 眞鑑禪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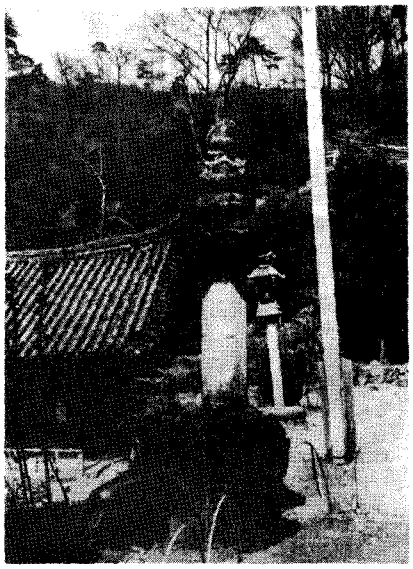

圖 6. 大雄殿前庭의 石燈部材

圖 7. 大雄殿 南側便의 磨崖坐像

磨崖坐像은 西向하였는데 이것은 岩壁의 형태에 따른 것이며 巨大하여 移搬할 수 없는 것이므로 原位置임이 확실하다. 西쪽 1面을 治石하여 長方形과 方形의 二重龕室을 마련하고 素髮의 如來坐像을 陽刻하였는데 약간 肥大해진 相好나 通肩法衣와 禪定印인 듯한 平印 주변의 衣文 등으로 보아 高麗代의 彫刻으로 推定되는 바 大雄殿을 중심한 西向伽藍이 經營되기에 앞서 이 磨崖佛이 彫刻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이다(圖 7).

이와같은 여러가지 遺蹟 遺物 중에서 가장 注目되는 것은 眞鑑禪師碑인데 현재가 原位置이며 原形이고 보면 當代에 있어서 이 자리에 伽藍을 經營하였을 理는 萬不當한 일이며 따라서 이곳과 가까

운 다른 자리에 寺域을 定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그런데 眞鑑禪師碑銘에 보면,

…是用建六祖影堂

이라 하여 당시 이곳에 禪刹을 창건하고 六祖의 影堂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혹시 현재 南向으로 諸建物이 配置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윗段의 中心에 자리잡은 金堂 즉 六祖頂相塔을 奉安한 이 建物의 터가 과거 禪師가 建立하였던 六祖影堂址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 곳 一帶의 地勢를 살펴보면, 大雄殿을 중심한 伽藍의 寺境을 벗어나면 東, 北은 山峰이요 南쪽에 溪流가 있고 西쪽으로는 南向 伽藍과 洞口에로 連接된다. 그러므로 當代에 있어 眞鑑禪師碑가 遺存하는 大雄殿 1群의 寺域에 伽藍을 配置하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보면 當時 의당 西쪽 臺地에 터를 마련하였을 것이니 따라서 현재의 金堂을 과거 六祖影堂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에 있어서도 金堂에 「六祖頂相塔」을 奉安하고 있음은 始創當時의 六祖影堂址를 歷代의 祖師들이 꾸준히 지켜온 결과가 아닌가도 생각 되는 바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만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아울러 여기서 분명히 밝혀 놓을 것은 新羅代에 眞鑑禪師가 創建한 玉泉寺 즉 雙谿寺 舊基는 현재의 大雄殿 중심의 寺域이 아닌 것과 오히려 옛터는 金堂 중심의 南向配置建物群이나 이 보다 더 西쪽으로 옮겨질 가능이 있다고 추측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서도 말 하였듯이 大雄殿 중심의 伽藍은 南向 1群보다 뒤늦게 經營된 것으로 朝鮮時代 後期에서도 아주 뒤진 때의 諸建物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筆者는 論題를 「眞鑑禪師大空塔의 推定」이라 하여 곧 禪師의 碑銘과 直結되는 禪塔의 墓禪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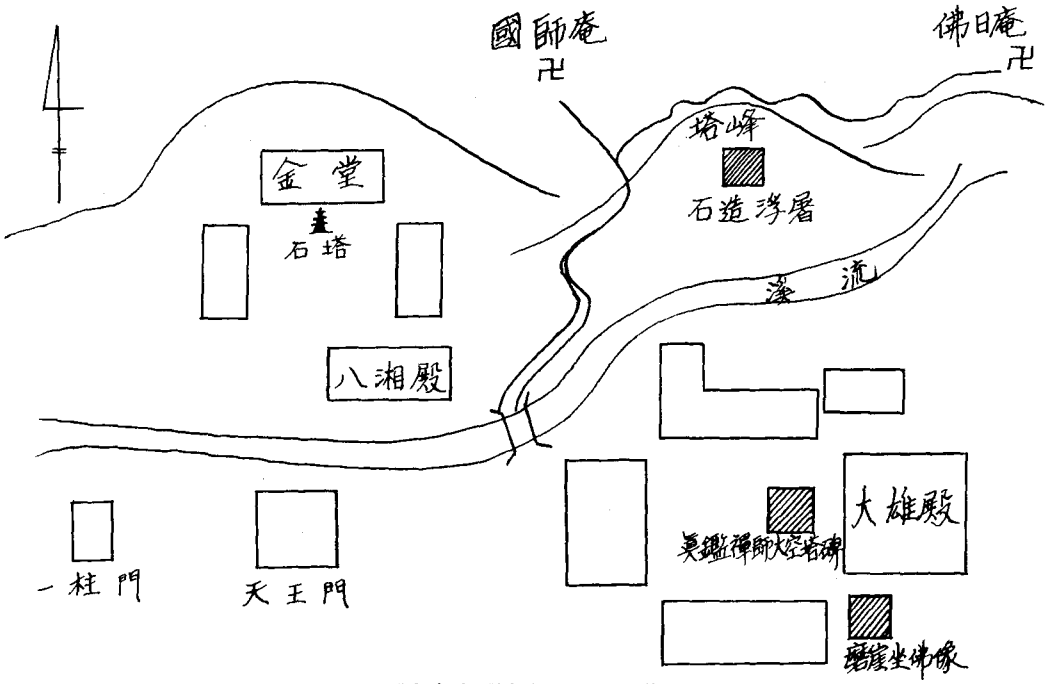

圖 8. 雙雞寺의 現存伽藍과 諸石物配置圖

느 것이냐 하는 것을 推定한다고 하였다. 朝鮮金石總覽이나 朝鮮金石攷에 題하여 「雙雞寺眞鑑禪師大空塔碑」라 하였고 國寶 第47號의 指定名稱에도 또한 그렇게 眞鑑禪師碑를 號稱하고 있다. 數次 現地를 踏査하여 禪師碑를 調査할 때 마다 이 大空塔碑와 함께 建造되어 있어야 할 大空塔이 어데에 있으며 과연 어떠한 형태의 墓塔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筆者가 처음 이곳을 訪問한 것은 1956年 2月이었는데 당시 住持 尹基元氏로부터 眞鑑禪師塔이라 전해지고 있는 浮屠가 있다는 말을 듣고 尹住持의 案內로 이 石造浮屠를 처음으로 調査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후 故李弘稙博士의 實態調査에 의하여 1961年 2月 6日에 文化財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雙雞寺浮屠」란 名稱으로 寶物 第380號로 指定되었던 것이다.(3)(圖 9)

圖 9. 雙雞寺 浮屠

이 石造浮屠는 현재 大雄殿에서 100餘m 되는 北西쪽으로, 南向配置인 金堂에서는 東쪽으로 100餘m 바라다 보이는 山봉우리 위에 위치 하였는데 1961年에 國寶로 指定된 후 筆者는 이 浮屠에 대하여 그 存在만을 간단히 學界에 紹介한 바 있다.(4)

이후 筆者는 여러 차례 이 곳을 찾게 되었었는데 그 때마다 眞鑑禪師大空塔碑를 보고나서는 山봉우리에 있는 俗稱 「眞鑑塔」이라는 이 石造浮屠를 調査하여 처음에는 禪師의 大空塔이 어데에 있고 어떠한 행식의 것인가를 찾다가 차차 現地踏査의 回數가 더해짐에 따라 점차 이 浮屠를 「眞鑑禪師大空塔」으로 推定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新羅時代의 石造浮屠는 거의 20基를 헤아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 主人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浮屠는 廉居和尙塔, 雙峯寺澈鑑禪師塔,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 등 10基도 못된다.

浮屠의 主人公을 밝힐 수 있는 것은 墓塔內에서 塔誌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墓塔옆에 塔碑가 建立되어 있어서 그 碑銘에 의하여 浮屠의 主人公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 眞鑑禪師인 경우에는 禪師의 「大空塔碑」는 原位置에 原形대로 잘 남아 있으나 그의 「大空塔」은 옆에 建立되어 있지 않아 大空塔의 有無마저 알 수 없어 막연할 뿐이었는데 다행히 近年에 이르러 寺域과 가까운 山봉우리에서 石造浮屠가 調査되어 이것이 그렇게도 存在와 主人公의 究明을 갈망하던 眞鑑禪師大空塔으로 比定되게 됨에 깊은 감회를 금할 수 없는 바인데 筆者는 이 浮屠를 禪師의 大空塔으로 推定함에 있어 우선 浮屠자체의 樣式과 手法을 檢討하여 그 建立年代 및 主人公이 뚜렷한 禪師의 碑石과 各部의 形式을 比較考察하고 다음으로 碑銘의 內容에서 더한층 확실한 考證의 자료를 얻어 論題解決의 綜合的인 結論을 지어 보려는 것이다.

---

(3) 당시에는 國寶 第567號로 指定되었던 것이나 그 후 國寶와 寶物을 區別하는 再指定時 寶物 第380號로 指定된 것이다.

(4) 拙稿 「雙谿寺 浮屠에 대하여」 考古美術 第2卷 第5號 通卷 10(考古美術同人會 1961年 5月刊) 참조.

二

雙谿寺 金堂에서 소속 庵子인 國師庵으로 가려면 뒷山을 넘어 약 1 km를 걸어야 되는데 山을 올르면서 東쪽을 바라보면 不日暴布를 이루고 있는 主峰에서 흘러내린 一支脈의 山봉우리가 웃뚝 솟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峰을 속칭「塔峰」이라 일컬으며 이 곳 山봉우리 위에 浮屠가 建立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松林이 울창하여 한눈에 찾기에는 困難하다. 日帝侵略期에도 물론 浮屠의 存在를 알 수 없었고 8.15光復이후에 많은 探訪客이 다녀갔지만 오랜동안 浮屠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마도 이렇듯 울창한 松林속에 가려 있고 또 寺刹境內에서 떨어져 있는 山봉에 위치한 까닭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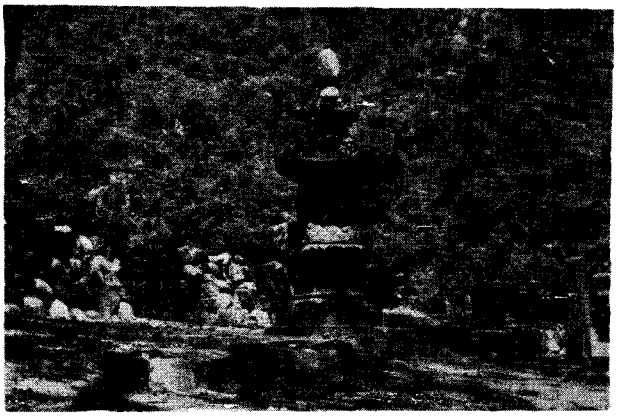

圖 10. 原位置에 遺存하는 것으로 보이는 浮屠

山봉우리의 稜線을 方 約 7m로 平平히 닦아 2段의 石壇을 築造하고 그 中央에 浮屠를 建立하였는데 石築자체의 規模와 形式, 그리고 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현재의 자리가 原位置이고 原形이 잘 保存된 형태로 볼 수 있다(圖 10).

浮屠의 構成은 上·中·下台로 형성된 基壇 위에 塔身部를 奉安하고 그 위에 屋蓋石과 相輪部를 놓았는데 平面이 8角形으로 이른바 8角圓堂型의 形式을 이루고 있으며 全高 2.05m로 巨作은 아닐지나 各部를 다 갖추고 있고 屋蓋石 추녀部에 약간의 破痕이있을 뿐 전체적

圖 11. 浮屠의 下層部

圖 12. 浮屠의 上層部

으로 보아 完全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아담한 浮屠이다(圖 11, 12).

基壇部는 8角地臺石 위에 各 1石씩으로 造成한 上, 中, 下臺가 重積되었는데 地臺는 一部가 埋沒되고 거의 地表에 노출되었으며 上面만을 治石하여 側面은 거칠게 보인다. 8角下臺石의 側面은 治石만 하였을 뿐 眼象 등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蓮華臺를 이루고 있는데 8角의 各偶角에 1瓣씩 도합 8瓣의 複葉蓮華紋을 伏連으로 조각하였다. 伏蓮臺 上面에는 높직한 괴임臺를 마련 하였는데 낮은 角形괴임 1段을 刻出하고 그 위에 甲石形의 굽을 角形으로 突出시킨 형태의 괴임을 나타냈으며 그 上面에 또 한段의 角形괴임을 刻出하여 中臺를 받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괴임臺를 斷面으로 보면 上, 下에 角形괴임이 1段씩 있고 그 중간에 別造의 괴임石을 끼운듯한 느낌을 준다(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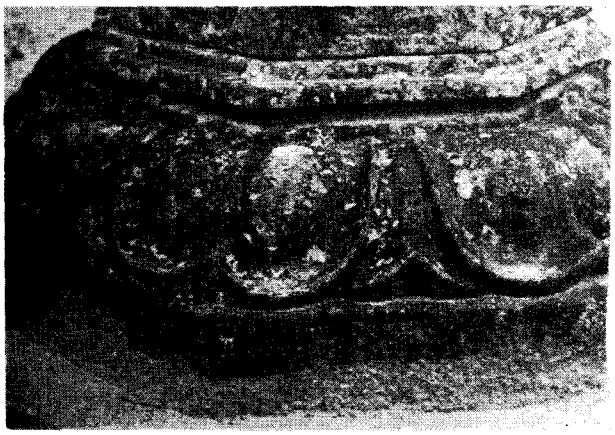

圖 13. 基壇部 下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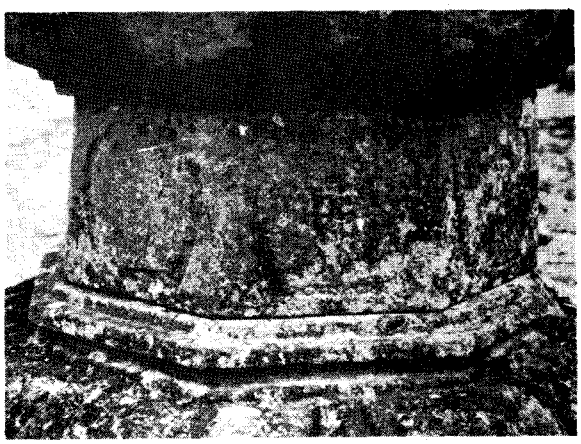

圖 14. 基壇部 中臺石

中臺石은 8面에 眼象이 1區씩 陰刻되었을 뿐 이 밖에 偶柱 등 아무런 彫飾이 없는데 이 眼象의 형태가 注目을 끈다.

즉 여기의 眼象은 거의 圓形에 가까우며 地線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된 眼象인 바 括弧形尖頭부터 비롯하여 弧線이 左, 右에 열려 가는 古式으로서 括弧의 막음線이 아주 크게 내려져서 眼象의 높이는 거의 中臺石의 높이를 따르고 있다. 眼象의 輪廓線은 퍽 날카로운 편이어서 一見하여 慶州 南山의 僧燒谷寺址三層石塔 基壇部와 初層屋身의 眼象을 연상케 하는데[5] 그 보다는 이 浮屠의 眼象의 弧線이 보다 더 圓形에 가깝다(圖 14).

上臺石은 下面에 2段의 角形받침이 彫出되고 仰蓮臺를 이루었으며 8角의 各偶角에 1瓣씩 도합 8瓣의 單葉蓮華紋을 仰蓮으로 조각하여 下臺石의 伏蓮과 對하게 하였는데 그 瓣端은 날카롭지 못하며 流麗한 作風만을 보인다. 上臺石 上面에는 圓形의 周緣을 따라 낮게 1段의 角形괴임을 刻出하여 塔身괴임臺를 받고 있다.

塔身괴임石은 별도로 1石으로 造成하여 끼워놓은 것인데 높이 22cm로 높직한 8角臺이다. 이 8角괴임臺石은 上面에는 아무런 裝飾이 없고 側面에만 8面에 彫飾이 있는데 圈雲紋을 數條씩 굵게 彫

(5) 이 石塔은 현재 國立慶州博物館에 移安 陳列되어 있다. 「慶州南山의 佛蹟」(朝鮮寶物古蹟圖錄 第二 1940年刊) 참조.

圖 15. 基壇部 上臺石과 塔身과임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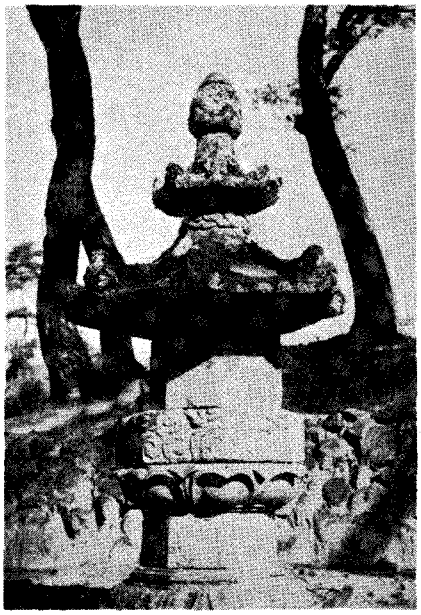

圖 16. 塔身과 屋蓋, 相輪部

刻하되 빈틈 없이 全面에 가득하게 하였다(圖 15).

이 괴임臺위에 8角의 塔身을 받고 있는데 塔身에는 隅柱形도 없고 아무런 彫飾이 없다.

屋蓋石도 8角이며 매우 廣濶한데 下面에 넓직한 받침이 있어 椽木을 意味한듯하고 塔身 바로 위에 놓이는 下底部에는 낮은 角形받침이 刻出되어 있다. 추녀는 直線形으로 隅角에 이르러 약간씩 위로 들려 있으며 各隅角의 轉角部에는 立狀形의 귀꽃紋이 큼직하게 彫刻되었다. 屋蓋石 上面에는 굵직한 隅棟形이 8角 屋蓋形을 따라 8條가 뻗어 내렸으며 落水面이 平薄하여 추녀 끝의 귀꽃과 잘 調和되어 輕快感을 주고 있다(圖 16).

屋蓋石 頂上部에는 마치 花紋과도 같은 雲紋을 굵게 彫飾하였는데 이것은 흔히 屋蓋石 頂上 주위에 彫刻되는 蓮華紋에 대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相輪部는 이 위에 屋蓋石을 축소한 것 같은 同一한 樣式의 寶蓋가 있고 그 頂上에 높직한 竿柱가 표시되었으며 最上部에는 큼직한 寶珠를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相輪部는 모두 一石으로 造成하였다. 寶蓋石의 下底部에는 屋蓋石頂上部위에 놓이는 곳에 8角의 角形 1段 받침을 刻出하였고 그 밖으로 弧形의 높직한 받침이 彫出되었다. 8角의 寶蓋는 屋蓋石과 같이 平薄하며 各轉角에 立狀形의 귀꽃이 屋蓋石의 귀꽃과 같은 형태로 彫飾되었는데 8座가 完全한 편이다. 竿柱와 寶珠의 表面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寶珠는 전체가 仰蓮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 裝飾的인 技巧는 보이지 않고 있어 精鍊된 最優秀作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各部材의 大小比例에서도 均衡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各彫鏤에서 形式化의 過程이 뚜렷하며 各部分의 彫飾이 簡素하여 建造年代의 降下를 免키 어렵다.

즉 基壇部에 있어서 上·下臺의 仰·伏蓮이 新羅代의 作風을 보이기는 하나 末期에 가까운 纖弱의 경향을 엿볼 수 있고 中臺石 各面의 眼象에 있어서도 新羅盛代의 예리한 弧線은 찾아 볼 수 없

으며 특히 下臺 上面에 마련한 中臺石괴임臺는 新羅下代에 建造된 石造浮屠基壇部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樣式인 것이다[6]. 塔身괴임臺에 있어서도 別石을 끼워 놓거나 혹은 별도로 만든 遺例를 新羅下代에 建造된 石造浮屠에서 볼 수 있으니 廉居和尙塔(844年頃) 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861年頃) 雙峯寺澈鑒禪師塔(868年頃) 寶林寺 普照禪師彰聖塔(880年頃)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882年頃) 等의 塔身部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形式에 있어서는 설사 이들 諸浮屠와 같은 類型에 속한다 하더라도 表面 裝飾이나 上·下端에 甲石形을 돌리고 各面에 眼象과 各種動物을 彫刻한 前例에 比한다면 年代가 뒤질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더우기 屋蓋石에 있어서 上面이나 혹은 下面에 기와골이 전혀 表示되지 않은 것은 上記한 前例들이 모두 기와골을 충실하게 模刻한 것에 比하여 또한 略化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年代가 降下됨을 直感할 수 있겠다. 그리고 屋蓋石 추녀 끝에 귀꽃을 彫飾한 것은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과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923年頃) 等인데 이 중에서 雙谿寺浮屠의 귀꽃처럼 立狀形인 것은 鳳巖寺와 鳳林寺의 墓塔이라 하겠다. 相輪部에 있어서 寶蓋를 얹고 寶珠를 最上部에 장식하는 것은 前例의 諸浮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인데 모두 仰·伏蓮으로 장식한 寶蓋와 寶輪을 重積하고 寶珠에 있어서도 如意珠形을 취하는 등 裝飾的인 意匠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이곳의 浮屠는 寶輪도 彫飾도 아무것도 없는 素紋의 竿柱와 寶珠로서 역시 省略化의 경향을 한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各部材에서 雄大한 感을 주는 한편 安定된 品位를 잃지 않은 作品임을 볼 수 있어 비록 下代인 9世紀末頃作이기는 하나 新羅代에 建造된 浮屠임은 틀림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三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石造浮屠는 浮屠 자체의 樣式과 手法으로 보아 新羅下代의 所作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 浮屠가 眞鑑禪師의 墓塔이냐는 것을 推定하기에 앞서 眞鑑禪師碑와 浮屠의 各部를 比較檢討해 봄으로써 兩者가 共通된 手法을 보이는 部分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이야 할 것인 바 그 理由는 墓塔과 塔碑가 함께 遺存하는 경우 兩者를 比較해 보면 碑座의 各面과 螭首의 各部에서 墓塔 各部分의 形式 및 彫飾紋樣과 同一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例컨데 雙峯寺澈鑒禪師塔과 塔碑,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과 塔碑,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과 塔碑,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과 塔碑,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과 塔碑 等은 모두 兩者間에 部分的으로 같은 形式과 紋樣 또는 같은 系統의 裝飾紋을 彫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곳 雙谿寺에 있어서도 墓師의 塞塔이 바로 이 石造浮屠라면 大雄殿 前庭에 서 있는 「大空塔碑」의 各部分에서 浮屠各部의 그것과 同一한 形式과 彫飾을 보이고 있을 것은 물론일 것이다.

첫째, 眞鑑禪師碑의 碑座部分과 浮屠의 塔身괴임臺를 比較하여 보면 兩者의 이 部分이 그렇게도 같을 수가 없다(圖 17과 15를 比較 參照). 碑座에 있어서는 碑身이 長方形이므로 碑座 또한 長方

(6) 中臺石괴임臺의 형식이 비록 꼭 같지는 않으나 별도로 마련한 遺例로서 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 (861年頃) 雙峯寺澈鑒禪師塔(868年頃)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882年頃) 禪林院弘覺禪師塔(886年頃) 등의 基壇部에서 볼 수 있는 바인데 이들은 모두 9世紀後半인 新羅下代에 建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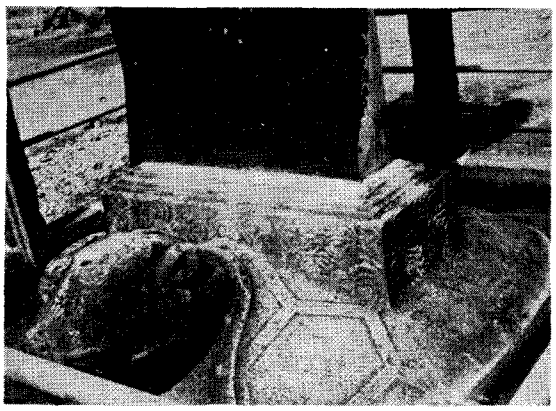

圖 17. 大空塔碑의 碑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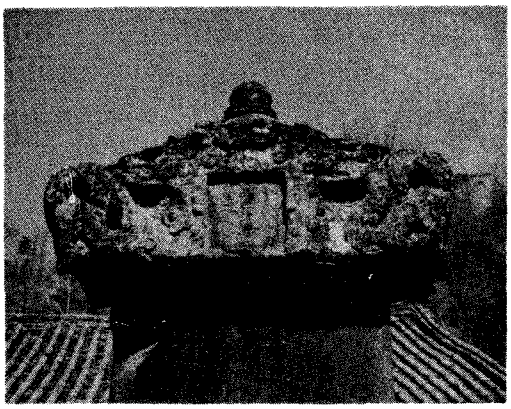

圖 18. 大空塔碑의 螭首

形일 수 밖에 없고 浮屠는 塔身이 8角이므로 그 괴임臺 역시 8角形인데 각기 그 側面에 돌려진 裝飾紋樣과 側面 構成의 形式이 같은 것임을 一見하여 알 수 있다. 즉 兩者가 똑같이 數條씩으로 굵직한 圈雲紋을 돌리되 빈틈·없이 各側面에 滿彫하였으며 側面構成은 上·下端에 甲石形이나 괴임받침臺 等의 刻出이 전혀 없는 簡素化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둘째, 石碑의 螭首와 浮屠의 屋蓋石 各部分을 보면 兩者間에 같은 系統의 紋樣을 彫刻하였음을 볼 수 있다(圖 18과 16을 比較 參照). 즉 螭首에 있어서 篆額주변의 雲紋과 龍트림 사이의 圈雲紋은 浮屠에 있어서 屋蓋石頂面寶蓋를 받는 괴임臺의 雲紋과 흡사함을 볼 수 있고 또한 螭首 頂上의 寶珠는 浮屠의 寶珠와 같이 非如意珠系統의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兩者를 比較考察해본 결과 各部分에서 同一한 形式과 手法의 構成, 혹은 같은계통의 裝飾紋樣을 찾아 봄으로써 兩者는 거의 같은 時期에 建造된 石物임을 알 수 있겠는데 이상과 같은 檢討는 樣式的인 面에서 兩者를 결부시켜 보려는 試圖였는 바 이러한 立場에서는 兩者가 他例들과 같이 禪師의 墓塔과 塔碑로서 보여 진다는 것이다. 한편 前項에서 浮屠의 建立年代를 推定하되 新羅下代인 9世紀末頃이라 하였다. 大空塔碑에 의하면 碑를 세운 年時를 알 수 있는 部分의 銘文이 심하게 磨滅되어 알 수 없으나 大東金石書에 이 碑石에 대한 기록이 있어 建造된 時期를 알 수 있다.(7)

雙谿碑 在晋州 智異山 雙谿寺眞鑑國師碑 翰林學士崔致遠撰竝書額 唐僖宗光啓三年丁未立

新羅眞聖女王元年

이라 보이므로 眞聖女王元年 즉 887年(唐僖宗 光啓 3年 丁未年)에 이 眞鑑禪師碑가 翰林學士 崔致遠에 의하여 撰書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年代는 먼저 浮屠자체의 樣式考察에서 推定한 浮屠의 建造年代인 9世紀末頃과도 거의 부합되는 바라 하겠다.

끝으로 序項에서 前提하였듯이 碑文의 內容을 檢討하는 일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論題와 직접 관계되는 禪師의 入滅부터 靈塔과 塔碑가 세워지는 時期까지의 內容만을 言及하고자 한다.

첫째, 碑文에서 禪師가 入寂한 時期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7) 大東金石書의 內容은 朝鮮金石攷에 게재 되어 있다.

大中四年正月九日 詰旦告門人曰萬法皆空 吾將行矣一心爲本汝等勉之無以塔藏形無以銘紀跡言竟坐滅
報年七十七積夏四十一

이라 있으므로 新羅 文聖王 12年 (850年, 唐宣宗 大中 4年 庚午) 正月 9日에 報年 77, 積夏 41年으로 入寂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禪師께서의 遺言이 「無以塔藏形」하라 하였으니 塔을 造成하지 않았을 것이며 「無以銘紀跡」이라 하였으니 필경 塔碑도 建立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그러면 禪師를 어데에 奉安하였겠느냐는 것인데 碑文에,

…弟子法諒等號奉色身不踰日而窆于東峰之冢遵遺命也,

라 보이므로 禪師의 遺命에 따라 弟子法諒 等이 東峰의 무덤에 모셨음을 알 수 있겠다.

셋째, 이후의 상황을 보면 碑文에,

文聖大王之朝上側 俛襟將寵淨謚及聞遺戒愧而寢之

라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文聖王이 禪師의 俛襟을 슬피여겨 淨謚를 내리려 하였으나 遺戒(無以塔藏形 無以銘紀跡이라 遺命한 것)를 듣고 부끄러이 여겨 이를 걷우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禪師가 入寂한 文聖王代에는 靈塔이나 塔碑의 建立이 없었고 謚號도 내리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넷째, 그런데 다음에 보이는 碑文을 보면 새로운 사실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越三紀門人以陵谷爲慮扣不朽之緣於慕法弟子內供奉一吉干楊晋方崇文臺鄭詢一斷金爲心勒石是請獻康
大王恢弘至化欽仰眞宗追謚眞鑒禪師大空靈塔仍許篆刻以永終譽

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가장 注目되는 것은 「越三紀」 후에 이르러 獻康王(→憲康王)때 일어난 새로운 일들인 것이다. 즉 越三紀라 하였으니 文聖王때 禪師가 入寂(850年) 한 후 三紀(→30年을 말함)면 憲康王代(875~885)가 되는데 이 때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憲康王이 眞宗을 欽仰하여 「眞鑒禪師大空靈塔」이라 追謚하고 인하여 또한 篆刻토록 하므로써 終譽를 기리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로서 注目되는 것은 「眞鑒禪師大空靈塔」이란 追謚와 「篆刻」하여 「永終譽」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때에 이르러 禪師의 墓塔을 建造하여 塔名을 「大空靈塔」이라 하였고 아울러 塔碑를 建立하여 後世에 남기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篆刻以永終譽」란 것은 지금 雙谿寺大雄殿 前庭에 서 있는 眞鑑禪師碑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고 「大空靈塔」이라 追謚한 禪師의墓塔은 분명히 存在할 것인 바 과연 어데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筆者가 우선 造形을 中心하여 樣式的으로 山봉우리 위의 石造浮屠를 注目하여 禪師의 墓塔으로 推定碑塔와 결부시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의 要點을 綜合해 보면……

禪師는 文聖王 12年(850)에 入寂하였으나 遺命에 의하여 墓塔이나 塔碑를 建造하지 않고 東峯 무덤에 모셨었는데 文聖王이 슬피여겨 淨謚를 내려 모실려고 하였던 것이나 遺戒가 그렇지 아니하여 이를 걷우었으며 이후 30年이 지난 憲康王때에 이르러 禪師를 欽仰하여 墓塔을 모시어 「大空靈塔」이라 追謚하고 아울러 塔碑를 建造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禪師를 東峯의 무덤에 모셨다가 30年후에 墓塔을 세워 모시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때 墓塔을 建造한 地點은 어느 곳이었겠느냐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禪師가 入寂하신 후 처음으로 모신 곳이 東峯의 무덤이라고 분명히 밝혀 놓았으므로 이 地點은 이 고장에서 가장 神聖하고 또 禪師와는 불가분의 인연이 있을 것임에 墓塔을 造成한다 하였을 때 어느 곳보다도 靈地인 이 무덤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墓塔을 세웠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추측은 筆者 이외라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墓塔은 당초의 무덤자리인 東峯에 세운 것이 틀림 없는데 그 때의 東峯이 과연 어느 봉우리냐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序頭에서 현재 石造浮屠가 建造된 위치를 밝혀 놓은 바 있다. 즉 오늘날 雙谿寺라고 하는 大雄殿 中心의 伽藍은 朝鮮時代 後期의 아주 뒤진 때의 重創이고 新羅代에 眞鑑禪師가 창건한 雙谿寺舊基는 현재의 大雄殿 中心의 寺域이 아니며 오히려 南向配置의 金堂中心의 建物址이거나 혹은 이보다 더 西쪽으로 옮겨질 가능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곳을 중심하여 주위를 살펴 보았을 때 그 方向이 정확히 東쪽이 되는 山봉우리가 바로 浮屠가 서 있는 山峯이 된다.

論題한 바 眞鑑禪師大空塔을 推定하는데 있어 이상과 같이 세가지 點에서 생각해 보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山峯에 있는 浮屠를 大空塔으로 추정함에 있어 우선 浮屠자체의 樣式手法에서 建造年代를 추측해 보아 9世紀末이라 하였고, 다음 禪師의 塔碑와 浮屠를 比較考察하여 兩者가 거의 같은 時期에 세워진 것이라 推定했으며, 끝으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禪師의 碑文 內容에서 몇가지 문제를 檢討하여 墓塔을 세운 場所가 東峰인 것을 알아 현재 遺存하는 「雙谿寺浮屠」가 바로 「眞鑑禪師大空靈塔」임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러한 結論을 내림에 있어 더한층 심증을 굳칠 수 있는 것은 墓塔과 塔碑의 位置 및 그 方向이다. 序項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현재 大雄殿 前庭에 서 있는 塔碑는 原位置에 原形으로서 龜頭를 南쪽으로 向하고 있으며 그 北쪽 山봉우리에 墓塔이 建造되었다. 그러므로 墓塔이 서 있는 山봉에서 내려다 본다면 墓塔의 위치에서 南쪽으로 벋어내린 山줄기의 南麓 언저리에 碑石이 서 있으며 이러한 서로간의 위치는 兩者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더욱 잘 보여주는 現地의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墓塔이 서 있는 주변의 상태도 注目된다. 대개의 경우 浮屠를 建立한 臺地는 그렇게 넓지 않는 것이 通例인데 이곳은 아주 넓게 臺地가 構築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最初에 큰 무덤을 썼던 자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넓직하게 整理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大空靈塔」과 「塔碑」의 建立年代에 대해서는 특히 塔의 年代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碑石의 建立年代는 大東金石書에 밝혀져 있으므로 眞聖女王 元年(885年)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墓塔의 建造年代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碑文에 의하면 憲康王께서 「大空靈塔」이라 追諡하였다 하니 大王 在世時에 建塔 追諡한 것으로 보아 下限을 王 11年頃(885年頃)으로 推定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끝으로 附言할 것은 塔과 塔碑의 號稱 문제인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이렇듯 眞鑑禪師의 墓塔을 찾아 놓았으니 「雙谿寺浮屠」를 「雙谿寺 眞鑑禪師大空靈塔」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塔碑도 「雙谿寺 眞鑑禪師大空靈塔碑」로 일컫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까지의 모든 경우가 塔碑의 名稱은 塔名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禪師碑도 이에 따라 그렇게 呼稱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